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2.7년 '첫 제동'

통계청 "기록적 한파 탓 사망자 급증 영향"

남·녀 기대수명, OECD 평균보다 각각 ↑

매년 꾸준히 늘어났던 국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기대수명 가운데 질병이나 상해 등을 겪지 않는 이른바 '건강수명'은 조사 이래 꾸준히 줄어들면서 64.4년으로 집계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년과 동일한 82.7년이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여다보면 2017년 82.69년에서 지난해 82.74년으로 근소하게 늘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발표하는 공식수치상으로는 포함이다.

197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당해 사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기대수명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겨울 한파가 1973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인구 고령화로 폐렴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고 겨울 날씨가 추웠던 것이 고령 인구 사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성별로 보면 2018년 출생 남성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격차는 6.0년에 그쳤다.

남녀 기대수명 간 격차는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4년을 한참 상회하며 회원국 가운데 일본(87.3년), 스페인(86.1년)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즉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남성 기대수명은 OECD 평균(78.1년)은 웃돌지만, 회원국 가운데서는 15위에 그쳤다.

연령별 기대수명은 80세 이상 남성과 9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40세인 남성은 향후 40.8년, 여성은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2년, 2.5년씩 늘어난 수치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10년 전보다 2.6년 늘어난 22.8년, 여성은 2.3년 증가한 27.5년 더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65세의 기대수명은 남녀가 각각 18.7년, 22.8년이었다. OECD 평균인 남성 18.0년, 여성 21.3년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롯데마트, 김장 나눔 행사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상무점·월드컵점·첨단점·수완점) 임직원들이 최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한 자리에 모였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1층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의 임직원과 사롯데 봉사단 50여명이 참석해 약 6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다.

/임후성기자



한국은행 '경제 마스터즈' 해단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지난 3일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발·운영한 '2019 한은 경제 마스터즈'의 해단식을 갖고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은 경제 마스터즈'는 경제 분야 전문가(Master)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양질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임후성기자

내년부터 00페이로 가전·항공권 산다

3천억대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내년 하반기부터 '00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3천억 원 상당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시도할 경우 심사를 우대해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4일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편결제 한도가 올라가면 이른바 '00페이'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00페이도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5천억 원에 달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금융권과 민간 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치 경신

1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0월부터 11억4천만달러 늘어난 4천74억6천만 달러로 집계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한직원이 달러를 세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64% "내년 연봉 인상"...평균 5%

내년 국내 기업의 64%가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줄 것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4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83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연봉 인상 계획을 조사한 결과 64% (309개사)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6% (174개사)는 '동결하거나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들은 내년 연봉 인상을 평균 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응답은 5% 인상이 30.7%로 가장 많았고, 3% (25.2%), 10% (10.7%), 4% (8.4%), 2% (8.1%), 1% (5.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연봉 인상률과 비교해서는 '비슷할 것' (72.2%)이란 의견이 대다수였고 '높아질 것' (13.6%), '낮아질 것' (12.3%) 등은 10%대였다.

인상을 올리는 이유로는 '꾸준하게 연봉 인상을 진행해와서' (42.4%,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35%), '최저임금 인상 폭을 반영하기 위해' (33.7%),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4.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내년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기업들은 '회사 매출 등 실적이 안 좋아서' (58%, 복수응답)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올해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석탄·가스 발전은 감소...석탄 40% 하회 가능성

올들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한 반면 석탄, 가스 발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5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 석탄발전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40%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4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와 에너지경제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분기 말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은 총 11만 4천23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6천834GWh)보다 17.8%나 증가했다.

올해 원전발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설비가 재가동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 8천 337 GWh로, 1년 전 (2만 6천 663GWh)보다 6.3% 늘어났다. 반면에 석탄 발전량은 16만 9천 738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 1천 575GWh)에 비해 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석탄발전 저감 조치의 시행 기준을 확대한 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가스발전량은 10만 4천 649 GWh를 기록하며, 1년 전 (11만 5천 766 GWh)보다 9.18%나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발전량 (42만 2천 558 GWh)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이 27.0%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보다 4.4%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42.4%에서 40.2%로 하락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도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계약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을 하기로 해 올해 전체로는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 조선대 특강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4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세관장은 관세청 및 광주세관 소개, FTA 체결현황 및 확산배경,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FTA시대 수출입 기업을 위한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박은성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